

■ 오늘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 달아오른 光銀 인수전

광주상의 “인수자금 7500억 마련할 것”

지역 최대 관심사인 광주은행 입찰에 광주상공회의소 등 5곳이 뛰어들어 인수전이 본격화 됐다. 광주은행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둔 25일 광주상위와 전북은행, 대구은행,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 등이 입찰 참여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여기에 중국 공상은행도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의는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광주 D인수 등 지역기업 대표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예비제안서 접수 전까지 참여 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조를 얻어 지역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금융자본, 외국자본 유치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광주은행 인수자금으로 5000억~6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출자자협의회 2500억~3000억원, 지역 연고 대기업 1000억~1500억원, 금융자본 2000억원, 외국자본 1000억원 등 6500억~7500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상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역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대기업, 금융자본, 외국자본을 늘린 것은 자본 참여가 다양화되면 인수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지역자본으로 인수할 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자본이나 해외자본으로 매각된다면 향후은행으로서 우월적 지위가 사라져 지금과 같은 순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전영복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은행 입찰참가의향서를 26일 제출하겠다”며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기업 대표 10여명 출자자협의회 구성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광주은행 인수를 공식화한 전북은행은 당초 25일 입찰참가의향서를 내기로 했지만 하루 늦춰 26일 제출할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일단 단독으로 입찰의향서를 제출하지만, 총 자산이 8조 9000억원인 전북은행이 자산규모가 배 이상 큰 광주은행(총 자산 17조 9000억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 기업들과 접촉한 적은 없지만, 다음달 예비제안서 접수 전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독자 민영화 추진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도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

우리금융지주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은 국내 대기업·해외기업 등을 비롯해 우리금융 산하 고객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은행과 광주은행·경남은행 전체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직급별로 ▲부행장급 1억 3000만원 ▲부장급 7000만원 ▲과장급 4000만원 ▲일반직원 1000만~3000만원씩 배정해 사원주주를 모집해 왔으며 25일 현재 8000억원 넘게 투자자금을 모은 상태다.

대구은행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모두 인수해 ‘지방공동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이들 은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향후기업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 300조원, 총 자산 2000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도 최근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광주은행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상은행은 26일 입찰참가의향서를 단독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전자 하도급 불공정 거래 현장 조사

공정위 광주·구미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시내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 광주전자, 구미

삼성전자 등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면조사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부당 경영간섭, 부당 하

도급 대금 결정, 기술탈취 여부 등이 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초부터 국내 대기업 40여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을 벌여 이 가운데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기업 72% “내년 R&D투자 확대”

내년 주요 기업들은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

장 박용현)는 국내 R&D 투자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연구개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2.2%가 R&D 투자를 올해보다

확대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구인력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 비율도 71.0%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R&D 투자를 10% 이상 대폭 확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높게 나타난 반면 R&D 투자를 축소할 것인 응답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호남지회 창립

25일 오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호남지회(초대지회장 정회환) 창립대회가 열렸다. 호남지회는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500여명의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과 소통의 폭을 넓혀주는 취지에서 창립됐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호남지회 제공>

더운나라 갈 여행객

외투 보관해 줍니다

아시아나 ‘코트룸 서비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더운 나라로 여행하는 승객의 외투를 보관해 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A지역에 있는 한진택배 카운터와 아시아나항공 K아일랜드 전면 카운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운터는 매일 오전 4시30분~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한 사람이 외투 한 벌을 5일간 무료 보관할 수 있고, 5일이 지나면 대한항공은 매일 2천500원씩의 보관료를 물리고 아시아나항공은 100마일을 마일리지에서 공제한다.

고객이 맡긴 외투는 비닐로 포장돼 보관되고, 외투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가 사용된다. /연합뉴스

10월중 무역항 물동량 1억t 돌파

광양항 전년보다 11.3% 늘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1억178만t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0월 물동량이 1억t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3%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총 물동량은 9억 8448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

항만별로는 광명·당진항과 광양항, 인천항은 활황세와 유류 및 차량 등의 수출입 증가로 작년 10월보다 40.6%, 11.2%, 4%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산항은 섬유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입 물량이 줄면서 작년보다 11.6%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모래, 유연탄 물량이 작년보다 33.1%, 16.2%, 12.4% 각각 늘어났지만, 철재는 0.3% 감소했다. 10월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동기보다 9.0% 증가한 161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의 74%를 차지하는 부산항은 117만TEU를 취급해 월 100만TEU 이상 처리 실적을 이어갔고, 인천항과 광양항을 이용한 물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동유럽 시장 ‘질주’

올들어 러시아 등 10만여대 수출... 전년비 127% 급증

에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던 지난해 바닥을 찍은 뒤 올해는 상당 부분 침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1~10월 기아차가 6만 1805대를 판매, 작년 동기 대비 98.5% 증가하며 가장 많은 수출 대수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5만7795대로 177.9%의 성장세를 보였다. GM대우는 4만9738대로 작년보다 97.5% 증가했으며, 르노삼성차는 1만1419대로 130.3%, 쌍용차는 9762대로 621% 각각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지난해 6만 6803대에서 올해 15만5324대로 132.5% 늘어났고, 우크라이나는 5612대에서 1만2250대로 118.3%, 아제르바이잔이 4231대에서 6441대로 52.2%의 판매 성장세를 나타냈다. 기아차는 프라이드(3만3366대), 포르테(1만3835대), 현대차는 클릭(3만2780대), 아반떼(1만1224대)가 가장 많이 팔렸고, GM대우는 라세티 프리미어(현지명 시보레 크루즈)와 쉐보레 판데 상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동유럽 지역 자동차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 대한 자동차 수출실적은 19만7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3997대)보다 127%나 늘어났다.

한 해 동안 40만9213대를 수출했던 2008년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1년 만

▲ 코스피지수	1,927.68 (+1.70)
▲ 코스닥지수	508.26 (+2.96)
▼ 금리 (국고채 3년)	3.31% (-0.03)
▼ 원·달러 환율	1,137.80원 (-4.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특허청 서비스 등록 제 41-0187289호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편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 * 토·일·공휴일

편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